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요르단

Hashemite Kingdom of Jordan

2023년 5월 17일 | 조사역(G3) 김혜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89천 km <sup>2</sup> 	<b>인구</b> 1,031만 명 (2022 <sup>e</sup> ) 	<b>정치체제</b> 입헌군주제 	<b>대외정책</b> 친미 노선 
<b>GDP</b> 488.4억 달러 (2022 <sup>e</sup> ) 	<b>1인당GDP</b> 4,741달러 (2022 <sup>e</sup> ) 	<b>통화단위</b> Jordanian Dinar (JD) 	<b>환율(U\$기준)</b> 0.71 (2022) 

- 중동 아라비아 반도 서북부에 위치한 요르단은 한반도의 1/2 규모의 국토와 1,031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접함.
-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운송, 관광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발달하여 에너지, 생필품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대외 경기에 민감함. 2009년 이후 세계경기 침체 및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입헌군주국이지만 국왕이 통치권을 행사하며, 1999년 즉위한 압둘라 2세 국왕은 군부와 대다수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 2011년 초 중동 민주화 혁명 당시에 요르단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발발하였으나 국왕의 퇴위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정부는 평화시위를 보장하며 무력 충돌을 최소화하였음.
-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대 중동 진출의 교두보 및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주변국들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원조를 받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7. 26 수교 (북한과는 1974. 7. 5)

**주요협정** 무역협정('72), 문화협정('77), 경제 및 기술협정('77), 항공협정('78),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00),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04),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협정('04), 관광협력협정('05), 원자력협력협정('08), 국방협력협정('09), 무상원조기본협정('13), 군사비밀정보교환협정('17)

###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출	469,686	668,911	821,769	자동차, 가정용회전기기, 자동차부품
수입	83,990	106,807	146,173	기타비금속광물, 기타석유화학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2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23건, 128,008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sup>e</sup>
경제성장률	1.9	1.9	-1.6	2.2	2.7
소비자물가상승률	4.5	0.7	0.4	1.3	4.2
재정수지/GDP	-4.6	-5.7	-8.5	-7.8	-6.9

자료: IMF, EIU

### 외부환경 악화로 2% 내외의 저성장을 시현하던 중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역성장

- 요르단 경제는 2000~09년 평균 6.5%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대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 에너지 수입비용 증가, 역대 군사적 갈등에 따른 수출시장 일부 폐쇄, 시리아·이라크 등 주변국들로부터의 난민 유입에 따른 노동시장 공급 과잉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2010~19년 평균 2.4%의 저성장에 그쳤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발발에 따른 관광업 침체 및 국내외 민간소비 감소, 저유가와 팬데믹의 여파로 산유국 경기가 둔화됨에 따른 GCC(걸프협력위원회) 회원국 내 요르단인 해외근로자들로부터의 송금액 감소 등으로 인해 -1.6%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

### 2021년 관광업 경기 반등으로 2.2%의 플러스 경제성장 회복, 2022년에도 수출 및 송금유입액 증가로 2%대 후반의 성장 추정

-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 요르단 GDP의 16%를 차지하던 주요 수입원인 관광업의 경기가 각국의 방역 완화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하고,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내외 수요가 증가하면서 2.2%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회복하였음.
- 2022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요인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유지함에 따라 요르단의 주요 수출시장이자 취업시장인 GCC 국가들의 경기가 회복하면서 수출 및 해외근로자들로부터의 송금액이 증가하고 관광수입이 회복한 결과 2.7%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요르단 중앙은행에 의하면 요르단의 2022년 관광 수입은 58억 1,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0.5% 증가하였으며, 해외근로자들로부터의 송금유입액은 34억 5,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음.
- 부문별로는 농업 부문이 4.8%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건설 부문(3.2%), 제조업 부문(2.7%), 도소매 무역, 호텔 및 음식점 부문(2.6%)이 그 뒤를 이음.

[표 1] 주요 기관들의 2023~24년 요르단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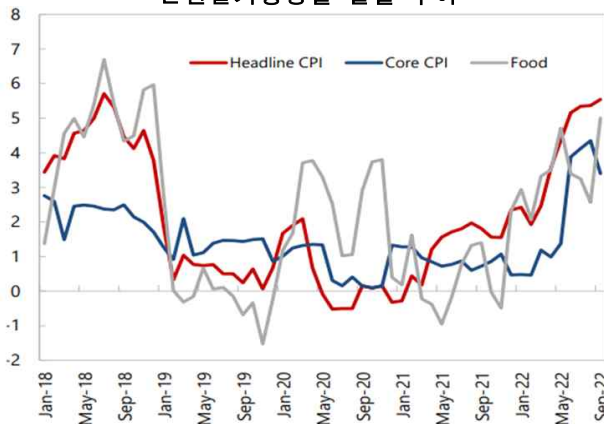
연도	IMF	세계은행	EIU	Fitch Solutions	IHS Markit
2023년	2.7	2.4	3.1	2.6	2.4
2024년	2.7	2.4	2.5	2.4	2.5

## 국내경제

### 에너지 및 식료품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 요르단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년 수요 증가와 에너지 및 식료품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높은 1.3%를 기록한 데 이어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곡물의 국제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4.2%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나, EIU는 요르단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여타 중동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평가함.
-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미국, EU 등이 대 러시아 경제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은 2022년 2월 23일 93.65달러에서 동년 3월 9일 127.86달러까지 급등하였음.
  - \* 러시아는 세계 3위 원유 생산국이자 2위 수출국으로, 하루 약 500만 배럴의 원유를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음.
- 세계 밀 수출량의 약 29%를 점유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한 밀 생산 및 수출 차질로 밀의 국제가격이 급등하였음. 2022년 3월 10일 요르단 산업통상공급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위기에 불구하고 요르단은 14개월 동안의 국내 소비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밀 비축량을 확보한 상태이고, 밀 가격 상승을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며 정부의 빵 보조금 또한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세간의 우려를 일축함.
- 요르단 통계청에 의하면 2022년 요르단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는 연료 및 조명(25.61%)의 가격 상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외에 교통(5.56%), 임대료(2.61%),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9.58%) 분야의 가격 상승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에는 세계 상품가격의 점진적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와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최근 5년 간 요르단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근원물가상승률 월별 추이



자료: IMF

[그림 2] 요르단의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Fitch Solutions

## 국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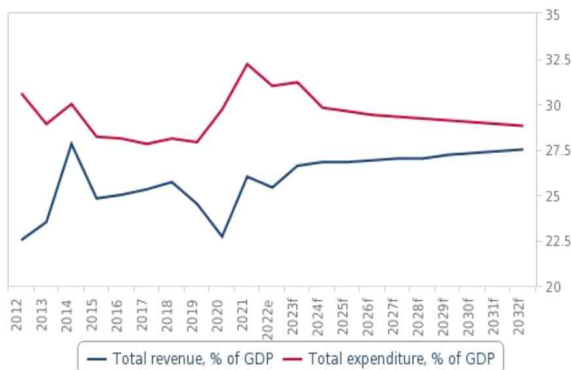
### 경기 회복으로 인한 세수 증가로 2022년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약 5% 감소 추정

-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2년 -14.3%로 정점\*에 도달한 후 정부의 일부 보조금 폐지·삭감, 요금(전기·수도 등) 인상 등의 재정 건전화 노력으로 2017년 -3.6%까지 감소하였으나, 2019년 수자원 부문의 손실 확대 등으로 -5.7%로 확대된 데 이어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감소 및 정부 대응책 시행 등으로 인해 -8.5%로 악화되었음.

\* 전력, 수도 등 국영 유틸리티 회사들의 순차입 필요액(net financing needs)이 재정수지 산출에 포함되는데, 2012년에는 동 금액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전년(-9.8%) 대비 크게 상승

- 2021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약 0.7%p 개선된 -7.8%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는 경기 회복으로 인한 세수 증가 및 재정지출 감소로 -6.9%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경기 회복세 지속과 재정건전화 정책의 시행으로 재정수지 적자는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GDP 대비 비율은 IMF 확대신용공여(EFF) 프로그램의 2024년 목표치인 -3.4%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요르단 정부는 IMF EFF 프로그램 수혜 조건으로 탈세 방지, 밀수 단속, 보조금 지급 축소, 공공 부문 급여 동결 등을 통해 2024년까지 1차 예산 적자를 4%까지 줄이는 목표를 수립함.
- 요르단은 현재 법인소득세와 GST(상품/서비스세)·VAT(부가가치세)의 잠재적 수입액 대비 실제 수입액 비율이 각각 0.13 및 0.31 수준으로 MENA 지역에서 가장 낮아 탈세방지와 같은 재정개혁에 따른 세입 증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다만, 2022년 12월 연료보조금 삭감이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한 후 식량 및 연료보조금 삭감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수지 적자의 지속으로 인한 추가 차입이 예상되어 이자비용 지출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함.

[그림 3] 요르단의 재정수입 및 지출 변동 추이



자료: Fitch Solutions

[표 2] 요르단의 재정수지 현황(GDP 대비 비중,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총 수입	22.7	22.5	25.0	26.1
국내수입	20.1	20.0	22.6	23.8
(세수)	(16.0)	(15.9)	(17.3)	(18.0)
해외원조	2.5	2.5	2.5	2.4
총 지출	30.0	29.8	31.3	31.7
경상지출	27.2	27.0	27.3	28.3
(임금)	(5.4)	(5.4)	(5.5)	(5.4)
(이자)	(4.2)	(4.1)	(4.3)	(4.2)
(국방·안보)	(8.5)	(8.5)	(8.5)	(8.2)
자본지출	2.7	2.6	3.6	3.4

자료: IMF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sup>e</sup>
경상수지	-2,963	-773	-2,506	-4,030	-3,960
경상수지/GDP	-6.8	-1.7	-5.7	-8.8	-8.1
상품수지	-10,302	-8,735	-7,386	-9,872	-11,803
상품수출	7,750	8,317	7,943	9,357	12,539
상품수입	18,052	17,052	15,329	19,230	24,342
외환보유액	12,690	13,224	13,189	15,275	14,157
총외채	32,158	33,482	38,017	41,821	43,863
총외채잔액/GDP	74.1	74.3	85.9	91.3	89.8
D.S.R.	19.2	24.2	38.0	20.3	22.9

자료: IMF, EIU

### 2022년 관광업 회복으로 서비스수지는 개선되었으나,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

- 요르단은 2022년 관광수입이 전년 대비 110.5%(58.2억 달러) 증가하여 서비스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약 4.7배를 기록(16.1억 달러)하고 이전소득수지 흑자도 해외근로자 송금유입액 증가로 전년 대비 24.9% 증가(71.7억 달러)하였으나, 상품수지 적자와 본원소득수지 적자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1.8% 감소에 그치며 GDP 대비 비율도 -8.8%에서 -8.1%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상품수출은 인도(요르단 수출의 약 15% 차지), 미국(2019년까지 요르단의 편직물, 의류 수출의 70% 차지)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수요 증가, 요르단의 주요 수출품인 인산염, 탄산칼륨 등의 수출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31.8억 달러 증가(증가율 34.0%)하였으나, 식량 및 에너지 국제가격의 폭등으로 상품수입이 상품수출보다 전년 대비 더욱 큰 폭으로 증가(전년 대비 51.1억 달러, 증가율 26.6%)하면서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19.6% 증가한 118.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요르단 정부는 경제개발계획 '요르단 2025'에 관광상품 개발 및 경쟁력 강화, 관광명소의 기반시설 개발, 관광교통 서비스 개선, 마케팅 및 홍보 확대, 관광 서비스 분야 고용 확대 및 인적자원 개발 등의 정책을 통해 2023년까지 4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포함시킨 바 있음.
- 2023년에는 GCC 국가들의 경제활동 둔화로 이들 국가들에 취업 중인 요르단인 근로자들로부터의 해외송금 유입액 감소가 예상되나,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와 관광업 회복세 지속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Fitch는 2023년 말까지 총 480만 명의 관광객이 요르단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요르단 상품수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에너지 및 식료품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함.

## 외채상환능력

### 경상수지 적자 지속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와 상품수입액 증가로 외환보유액 지표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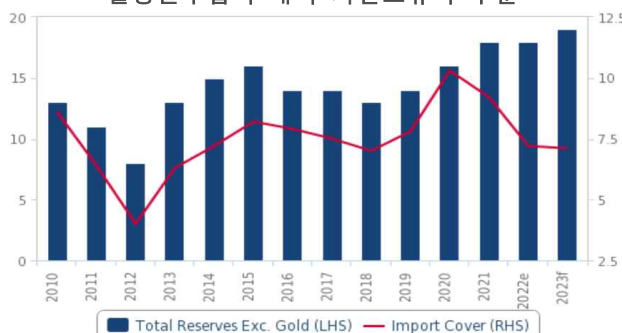
- 2021년 말 요르단의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7.5개월분이었으나, 2022년에는 경상수지 적자 지속으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국제유가 및 식료품 수입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입액이 증가한 결과 연말 기준 5.4개월분으로 감소하고 D.S.R.도 2021년 말(20.3%) 보다 상승한 22.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요르단은 경상수지 적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는 한편 미국, GCC 회원국, IMF 등으로부터 풍부한 원조 및 차관 지원을 받고 있어 향후에도 외환보유액 규모는 디나르화의 달러 페그제를 유지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예상됨.
- 요르단 정부는 2022년 6월 8일 6.5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고정이표율 7.75%, 5년 6개월 만기)를 발행한 데 이어 2023년 4월 4일 12.5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고정이표율 7.5%, 5년 9개월 만기) 발행에 성공하였으며, 2022년 9월에는 미국 정부와 연간 8.5억 달러를 지원받는 MOU를 체결함.

### 재정적자 누적으로 공적채무 비율이 높으나 상환부담은 낮으며, 당분간 감소할 전망

- 요르단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외국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축소와 2011년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2009~13년 사이의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해 MENA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공적채무를 안고 있으나, 이자비용이 낮은 양허성 채무의 비중이 높고 만기가 길어 상환부담은 크지 않음.
- 2022년 요르단의 공적채무 변제비용(원금 및 이자 상환액)은 재정수입의 약 17.7%로 추정되어 이집트(46.5%), 레바논(39.8%) 등 역내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공적채무 잔여 만기는 2023년 1월 기준 6년으로 2018년 이후 거의 2배 이상 증가함.
- 요르단의 GDP 대비 공적채무 비율은 정부의 재정개혁 노력에 따른 재정적자 축소로 인한 부채 축적 둔화와 경제 성장세 지속으로 2023~27년 간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요르단의 GDP 대비 공적채무 비율은 2021년 91.9%로 정점을 찍은 후 2025년 85% 이하로 내려가고 2027년에는 80%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예상보다 높은 기후변화 적응 비용\*과 공공 부문 우발채무의 구체화 가능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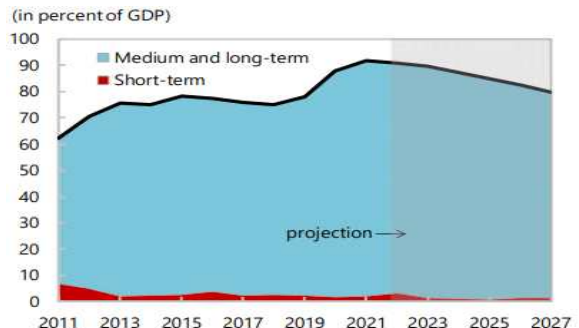
\* 급격한 인구 증가, 기온 상승 및 강수량 감소로 수십년 간 물 부족 문제가 악화된 요르단은 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홍해의 물을 담수화하여 국가로 운송하는 메가 프로젝트 등 여러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4] 요르단의 외환보유액 변동 추이 및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수준



자료: Fitch Solutions

[그림 5] 요르단의 공적부채 만기 구조



자료: IMF

## 구조적취약성

### 관광업과 해외근로자 송금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외부환경 변동에 민감

- 요르단은 풍부한 원유·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여타 중동 국가들과 달리 인산염, 탄산칼륨을 제외한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만성적인 수자원·전력 부족으로 제조업 발전 수준도 낮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발달하였음. 특히 관광업과 해외근로자 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외 경기변동과 지정학적 리스크(인접국들인 이라크·시리아의 정치/사회적 리스크) 등 외부환경 변동에 민감함.
- 요르단의 관광산업은 2010년대 중반부터 전례가 없는 큰 호황을 누렸으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에 따른 각국의 봉쇄조치 등으로 인해 관광객 유입이 급감한 결과 관광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 GDP의 16.3%(69억 달러), 고용의 18.6%(25.6만 명), 총수출의 40.3%(62억 달러)에서 2020년 기준 GDP의 약 4.7%(19억 달러), 고용의 15.3%(19.6만 명), 총수출의 11%(14억 달러)로 대폭 축소되었음.
-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 시작한 2021년부터 요르단의 관광업도 회복세를 보여, 페트라 개발 관광지역청(PDTRA) 발표에 따르면 요르단의 대표적 관광지인 페트라를 찾은 방문객 수는 2021년 약 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였음. 2022년에도 관광 부문의 수입이 58억 1,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0.5% 증가하여 회복세를 이어감.
- 대다수의 요르단인 해외근로자가 GCC 회원국들에서 일하고 있는데, EIU에 따르면 2020년에는 코로나 19 팬데믹과 저유가 사태가 겹쳐 GCC 회원국들의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요르단의 해외근로자 송금유입액이 26.8억 달러로 전년(28.5억 달러) 대비 감소하였음. 다만, 송금유입액은 각국의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기 시작한 2021년 30.9억 달러로 반등한 데 이어 2022년 40.1억 달러로 빠른 회복세를 보임.
- 한편, 실업률 해소를 위해 중동 산유국들이 시행 중인 자국민 우선 고용정책은 요르단인 해외근로자들의 취업 여건을 중장기적으로 악화시켜 요르단의 이전소득수지 및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성장잠재력

###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오일 셰일과 재생에너지원이 풍부

- 요르단은 천연자원이 부족해 필요한 연료와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원유보다 효율성이 훨씬 높은\* 오일 셰일이 국토의 60~70%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음.
  - \* 50억 톤의 오일 셰일은 에너지 효율면에서 340억 톤의 원유와 대등함.
- 요르단은 함자(Hamza) 유전과 알리샤(Al-Rishah)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으나, 함자 유전의 생산량이 몇 년 간 감소하고 2021년 기준 천연가스 매장량이 20년 전의 2,300억 m<sup>3</sup> 대비 200억 m<sup>3</sup> 감소하는 등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상태임.
- 이에 요르단 정부는 3개의 추가 유정을 시추해 일평균 원유 생산량을 2,000배럴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가 시추 후보지점으로 12개 구역을 제시하여 외국자본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알리샤 가스전에서도 추가로 5~6개의 가스정을 시추하고 있음.
- 오일 셰일은 요르단의 가장 중요한 천연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음. 에너지 및 광물자원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요르단 내 오일 셰일 매장량은 약 1,000억 톤으로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임. 2023년 1월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천연자원 개발회사인 Al-majarrah와 남부 Lajjun 지역의 오일 셰일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함.
- 다만, 요르단의 오일 셰일은 유황의 비율이 8~10%로 매우 높아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사용 가능한 오일의 추출에 배럴당 약 50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편임.
- 요르단은 연간 316일,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태양광선을 흡수하는 태양에너지원이 풍부한 국가로 평균 일사량이 1m<sup>2</sup>당 5~7kwh에 달하며 연간 최소 1,000Gwh의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sup>1)</sup> 수도 암만 인근의 Baynouna 태양광발전소는 이미 2020년부터 약 16만 가구를 대상으로 200MW의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약 36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내고 있으며, 마안 개발구역에는 발전용량 250MW 이상의 집중형 태양광발전소 건립도 추진되고 있음.

### 전 세계 인산염 매장량의 4%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300년 간 채굴이 가능할 전망

- 인산(phosphoric acid)은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각종 세정액 및 식각액 등의 중요 원자재이며, 요르단은 인산 생산의 원재료인 인산염(phosphate)의 전 세계 확인매장량 중 약 4%(약 37억 톤, 세계 5위)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약 300년 간 채굴이 가능할 전망이다. 1949년 창립된 요르단 인산염광산회사(JPMC)는 요르단 전체 인산염 매장량의 약 34%(약 12.5억 톤)를 보유하고 채굴의 80% 이상을 담당하며, 연간 800만~1,000만 톤의 인산염 생산능력을 갖춘 세계 6위의 인산염 생산 기업이자 세계 2위의 인산염 수출 기업임.
- 최근 인산염 국제가격 상승에 따라 JPMC가 100% 지분을 소유한 인도-요르단 화학회사(IJCC)는 생산 라인을 증설해 일일 인산 생산량을 2,000톤으로 늘렸으며, 최근 요르단의 리샤(Risha) 지역에서 7억 톤 규모의 인광석 광산이 새로 발견되어 향후 인산염 생산 및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 글로벌 컨설팅 업체 Ernst Young의 재생에너지 국가별 매력지수(RECAI) 보고서(2022.11월)에서 요르단은 전체 38위, MENA 국가 중 3위(모로코 19위, 이집트 29위)에 랭크됨.

## 정책성과

### 대외 개방정책 기조 유지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

-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내수기반이 약한 요르단은 대외개방 및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국(2001년, 이하 발효 기준), EFTA(유럽자유무역지대, 2002년), 싱가포르(2005년), 이라크\*(2010년), 캐나다(2012년)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외 다수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음.
  - \* 이라크와의 교역은 현재는 잠정 중지되었으나 2019년 약 300여개 품목에 대한 면세 혜택 제공(자료: KOTRA)
  - \*\* ①18개(요르단 포함) 아랍 국가들 간의 Greater Arab Free Trade Area(1988년), ②EU와의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 2002년), ③이집트·튀니지·모로코와의 Agadir 협정(2006년 발효)
- 1990년대 들어 외국인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한 요르단 정부는 1995년 '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산업부 산하에 요르단 투자유치공사를 설립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표방하며 글로벌 기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옴.
  - 또한, 아카바 경제특구, 자유무역지대 44곳(6개 공영, 38개 민영), 개발구역 12곳을 설립하여 각종 세금(관세·법인세·상품용역세 등)의 감면 또는 면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2014년에는 투자법 30호를 제정하여 투자유치 업무를 요르단 투자위원회(Jordan Investment Commission, JIC) 관할로 일원화함.
- 이러한 요르단 정부의 노력으로 요르단으로의 연간 FDI 유입액은 2014년 21.8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2017년부터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요르단 정부는 2022년 7월 투자환경법을 제정함.
  - 투자환경법은 투자자 등록 및 면허 발급과 관련한 단일한 창구를 구성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 투자자 본인 및 가족의 빠른 정착 지원을 위한 입·출국 및 사증발급 간소화, 국제사법 관행에 따른 중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표 3] 2017~21년 요르단으로의 FDI 유입액 변동 추이

단위: 억 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3	9.6	7.3	7.6	7.2

- 2022년 6월 EU와 요르단은 2027년까지 양자간 협력을 이끌 "요르단-EU 파트너십 우선순위"에 합의하였으며, 최대 26.8억 달러의 대규모 공공 및 민간 투자를 구현하기 위한 EU-요르단 투자 플랫폼 출범을 발표하였음.

### 수자원 부족을 비롯한 에너지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

-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요르단은 미국, 네덜란드, 독일 정부 및 국제 원조기관 등으로부터 약 8,0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수도 암만 남부의 하수도 개설 및 북부 하수처리장 시설 확장 등 수자원 공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로부터 5,000만 m<sup>3</sup> 규모의 물 추가 구매에 합의함.
  - \* 요르단의 1인당 물 보유량은 120m<sup>3</sup>에 불과하여 세계 제2위의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됨.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가용용량이 2020년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면서 잉여전력이 발생함에 따라 요르단 정부는 산업체질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4월부터 사회 전 분야의 전기요금을 인하함.

## 정책성과

### 경제개발계획 '요르단 2025'의 성과는 저조한 수준

- 요르단 정부는 2015년 10개년 경제개발계획인 '요르단 2025'를 수립하였음. 동 계획은 ①원칙에 따른 운영, ②기회균등, ③재정의 지속가능성, ④경제적 자립을 4대 축으로 설정하고 있음.
- 세부 달성목표로 2025년까지 최고 7%대의 경제성장, 빈곤층 비율 감소(2014년 14% → 2025년 8%), 실업률 감소(2025년 10% 미만 수준), 에너지 자급률 제고(2014년 2% → 2025년 39%), 여성의 노동참여율 향상(2014년 15% → 2025년 24%),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 감소(2014년 82.3% → 2025년 47.4%) 등을 설정하였으나, 2022년 말 기준 성과는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 경제성장률 2.0%(2021년 기준), 실업률 23.2%(2021년 3분기 기준), 여성의 노동참여율 14.2%(2020년 기준), 공적채무 비율 117.2%(2021년 기준)로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음.

### '2021-2023 중점 추진 경제 프로그램(EPP)'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 등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추진 중

- 2020년 10월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Omar al-Razzaz 총리가 사임하고 Bishr al-Khasawneh가 새 총리로 임명되면서 2021년 8월 정부와 민간 부문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대 주요 목표와 53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된 '2021-2023 중점 추진 경제 프로그램(EPP)'을 발표함.
- 3대 주요 목표는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시장 내 경쟁 강화 및 고용률 증가, 우선순위 분야(여행, IT, 농업, 제조업) 지원 확대, 총예산 6.78억 달러 중 2.82억 달러는 해외원조를 통해 조달할 예정임.
- 요르단 정부는 '2020-2030 에너지 전략'을 발표하고 발전소 건립 확대와 에너지원 다양화를 통한 에너지 산업 발전 및 자립도 향상을 추진 중임.
- 요르단은 비산유국으로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이집트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발생한 소요 사태로 이집트 천연가스 수송관이 공격을 받아 발전소 추가 건설, 에너지원 다양화 등 에너지 안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요르단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음. 연중 320일 이상의 맑은 날씨와 5~7kwh/m<sup>2</sup>에 달하는 태양 복사열은 태양광 에너지 생산에 적합하며, 초속 9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이 다수 존재하여 풍력발전에도 강점을 지니고 있음.
- 2015년 발표한 '요르단 2025'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를 2014년 1.5%에서 2025년 11%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 2020년 말 동 비중이 약 21%를 기록하여 목표를 조기에 초과 달성하였음. 이에 요르단 정부는 2020년 '2020-2030 에너지 전략'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1%로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에너지 공급량 증가로 잉여전력이 발생함에 따라 시리아,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팔레스타인 등 주변국들과의 전력망 연결 및 전력 공급 계약을 통한 전력 수출을 추진하고 있음.

## 정책성과

### 2022년 6월 향후 10개년 개발 전략을 담은 '경제 현대화 비전' 발표

- 2022년 6월 요르단 정부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요르단인의 삶의 질과 수준 향상을 목표로 '경제 현대화 비전'을 발표하고, '요르단의 경제적 잠재력 발휘', 그리고 '교육·의료·교통 등 인프라를 포함한 서비스 부문의 질 향상'을 동 비전의 2개 축으로 선정하였음.
- 또한, 고용기회 창출, 중산층 확대 등의 세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8개의 국가 경제성장 동력 부문을 선정하고 이들 8개 부문(기업가 정신과 창의성, 미래 서비스, 국제적 관광지, 고부가가치 산업, 지속 가능한 자원, 생활수준, 지속 가능한 환경, 투자) 아래의 35개 하위 부문에 걸친 366개의 이니셔티브를 지정하였음.
- 해당 비전은 '요르단 2025', '2021-2023 중점 추진 경제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가장 장기간의 계획을 최초로 명시하였으며, 기존에 각 부처별로 운영되어 오던 정책 방향을 왕실 주도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IMF의 확대신용공여(EFF) 프로그램을 통한 구조적 변화 노력에 정진

- 요르단 정부는 IMF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정구조 개혁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음. Fitch에 따르면 2000년 GDP의 100%에 달했던 중앙정부 채무(SSIF\* 대출 제외)는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2005~16년 중 중앙정부 지출을 GDP의 10% 수준으로 축소)을 통해 GDP의 60% 미만으로 감소하였음.  
\* SSIF(Social Security Investment Fund): 요르단의 경제사회 상황을 고려해 사회보장공사(SSC)의 투자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문투자기관
- IMF는 2020년 3월 요르단에 대한 13억 달러 규모의 확대신용공여(Extended Fund Facility, EFF) 프로그램을 승인하였으며, 요르단 정부는 4년 간 ①점진적·성장친화적·공정한 재정건전화 정책 시행, ②디나르화 페그제 유지를 위한 통화·금융 안정성 확보, ③전력·수자원 부문 개혁 가속화, ④일자리 확대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기업환경, 거버넌스 개혁 추진에 힘쓸 것이라고 밝힘.
- 현재 IMF와 요르단 정부는 공적채무(SSIF 소유 정부채권 제외)의 GDP 대비 비율이 2021~22년 90% 수준에 도달한 뒤 2025년까지 8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정균형 달성을 위해 요르단 정부는 ①세무행정 개선과 탈세·조세회피 조사, ②투자세 면세 축소, ③재산세 과세체계 재검토, ④소비세 재편성, ⑤비우선순위 지출에 대한 정당성 확보 등의 노력을 이행하기로 함.
- 다만, 저성장 및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생활수준이 낮아지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요르단 정부가 재정건전화 정책(공공지출 삭감, 세수 확대)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정책성과

### 거버넌스 및 거시경제 안정정책 효과성은 비교적 우수한 수준

- Moody's는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요르단의 세계거버넌스지수(WGIs)가 인근국 및 동종 그룹(B그룹) 국가에 비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낮은 물가수준 및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유지를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거시건전성 조치(페그제 포함)의 효과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함.

\* Moody's 신용등급 평가지표 중 통화-거시경제 정책 효과성 부문의 등급을 A(종합등급은 B1)로 부여함.

- 요르단 디나르화는 미 달러에 고정되어 있어(1달러당 0.708디나르) 물가수준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동시에 중앙은행의 주요 통화정책이 미 연준의 통화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독립적인 통화정책 시행이 어려움. 요르단 중앙은행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맞춰 2020년 3월 정책금리를 4%에서 2.5%로 인하하였으나,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2022년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여 12월 말 기준 6.5%로 총 4%p 인상함.
- 한편, 요르단은 2021년 기준 세계거버넌스지수(WGIs)\*에서 공공 서비스의 질, 정치적 중립성, 정부의 정책 수립 이행 능력 등을 평가하는 정부의 효율성 부문에서 2014년 이후로 꾸준히 양호한 점수를 획득하여 2021년에는 0.23을 기록하였음.

\* -2.5~2.5 사이에 분포하며, 높을수록 우수

[표 4] 요르단의 정부 효율성 부문 평가 지수 변동 추이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수	0.14	0.15	0.16	0.11	0.13	0.11	0.13	0.23

## 정치안정

### 국왕의 강한 권한으로 정치가 안정되어 있으며, 정치 시스템 현대화 추진 중

- 요르단은 중동·북아프리카 국가 중 정치적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국가로, 형식적으로는 입헌군주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999년 즉위한 압둘라 2세(Abdullah II) 국왕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음.
- 2021년 11월 10일 실시된 총선(하원의원 선출)에서 친국왕 세력인 무소속과 각 부족 출신 의원들이 총 130석 중 118석(90.77%)를 차지해 국왕 주도의 정부 정책 추진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4월 이복동생 함자(Hamzah) 왕자의 쿠데타 모의 발각으로 왕권에 위협을 느낀 압둘라 국왕은 정치적 불만의 해소를 위해 2021년 6월 시민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정치 현대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동 위원회에 의해 추진된 개헌안이 2022년 1월 국회의 승인을 받았음.
- 개헌 결과 국왕이 직접 임명하던 총리직을 제1당이 선출하게 되었으며, 이전에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부족이나 가족 간 연대를 기반으로 출마하여 정당의 당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이었으나, 다음 선거에서는 30%의 의석이 배정되었고 중기적으로는 그 비율을 60%까지 높이는 목표를 세움.
- 그러나 개헌 결과 국왕이 각료회의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 군사 및 보안 책임자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을 직접 임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 및 지역 비상사태 시 소집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를 설립하고 국왕이 위원장을 맡음에 따라 왕권이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지적도 있음.

## 사회안정

### 난민 유입,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생활고 가중 및 실업률 상승으로 국민 불만 증가

- 이라크, 시리아 등 인접국들의 정치적 불안에 따른 대규모 난민 유입,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연료 가격과 전기료 인상, 보조금 감축 등)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맞물려 서민 생활고가 가중되고, 2020년 23%대로 급등한 실업률이 2021년과 2022년에도 24%, 23%를 지속하며 사회적 불만이 증폭되고 비폭력적 시위와 파업이 증가함. 다만, 급진적인 폭력시위나 체제변화 사태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2분기 기준 여성의 실업률은 29.4%, 청년층(15~24세)의 실업률은 46.1%로 추정됨.

- 세계은행은 2021년 12월 민간 부문 고용 촉진, 기술훈련제도 개선을 통한 실업문제 완화를 위해 총 1.12억 달러의 예산을 요르단에 배정했으며, 요르단 정부도 향후 2,000여개 민간 기업에서 63,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발생을 목표로 각종 정부 보조금 지원 및 교육 인프라 개선에 나서고 있음.
- 대규모 난민 유입은 미숙련 또는 비공식적 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 경쟁을 심화시켜 노동시장 수급의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한편, 요르단 국민들의 공공 인프라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저해시키고 물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는 등 요르단의 주요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음.
- 유엔난민기구(UNHCR) 통계에 의하면 요르단은 약 75만 9,745명의 난민을 수용하여(2022년 1월 기준) 인구 대비 난민 수용 비율이 세계 2위를 기록하였음. 요르단 정부는 시리아 난민을 노동시장에 받아들이는 포용적 정책을 시행하여 2021년 시리아 난민에게 취업 허가증 6만 2,000여건을 발급하였으며, 이는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연간 최대 건수임.

## 사회안정

### 토착 요르단인과 팔레스타인계 주민 간 갈등 상존

-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토착 요르단계 국민들은 군주제와 현 정치 체제를 지지하는 기득권층이나, 인구의 대다수인 약 60%를 차지하는 팔레스타인계 국민들은 대다수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후 요르단으로 유입된 난민 출신으로, 요르단 사회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되어 토착 요르단계 국민들과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음.
- 1946년 5월 25일 요르단 왕국의 초대 국왕으로 즉위한 압둘라 1세(현 국왕 압둘라 2세의 고조부)는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요르단 영토로 합병코자 1948년 5월 15일 발발한 아랍-이스라엘 전쟁에 참가하여 동예루살렘을 비롯한 요르단 강 서안 지구(West Bank)를 점령하고 요르단 내 팔레스타인 아랍인 거주자들이 요르단 국적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여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반발을 산 끝에 1951년 7월 20일 동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아랍인에 의해 암살당하였음.
-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으로 인해 요르단 국내에서도 팔레스타인계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이스라엘 감정이 높으나, 요르단 정부는 요르단 강 수자원 이용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스라엘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어 팔레스타인계 주민들의 반발이 존재함.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Moody's는 2022년 12월 보고서에서 높은 환경·사회적 위험을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배구조가 상쇄하는 점을 감안하여 요르단에 4등급(Highly Negative)의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부여함.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1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긍정적/Positive)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중립적/Neutral-to-low) 30개국(미국 등), 3등급(다소 부정적/Moderately Negative) 37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부정적/Highly Negative) 47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매우 부정적/Very Highly Negative) 19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각각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국가 중 하나로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난민 유입을 포함한 급속한 인구증가가 제한된 수자원과 기반시설의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4등급(부정적)을 부여하였음.
- **(사회)** 계속 증가하고 있는 노동인구를 노동시장이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데 따른 낮은 고용률, 특히 청년고용률을 고려하여 4등급(부정적)을 부여하였음.
- **(지배구조)** 강력한 법치 및 부패 통제와 과거 개혁 및 재정정책 시행 실적을 반영하여 2등급(중립적)을 부여하였음.

## 국제관계

### 중동 지역 내 전략적 요충지로, 미국 및 GCC 회원국들과는 우호관계 유지

- 요르단은 안보 및 경제적 지원 등의 이유로 미국 및 GCC 회원국(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과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미국과 GCC 회원국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와 주변국들의 내전 등으로 정세가 불안정한 중동 내 평화 유지를 위해,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요르단에 대한 재정·군사지원을 지속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2018~22년 중 연간 12.8억 달러(2020년 요르단 GDP의 3% 수준) 이상의 경제·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실제로는 2018~21년 중 그보다 많은 금액인 연간 15.5억 달러를 지원하였음. 동 양해각서는 2022년 9월 만료되어 9월 16일 미국이 요르단에 2023~29년 연간 14억 5,000만 달러(총 101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4차 양해각서에 서명함.
- 2018년 카타르를 제외한 GCC 회원국들이 5년 간 25억 달러 규모의 경제지원 패키지를 제안했으며, 이와 별도로 UAE는 보건·위생 관련 3억 달러 규모의 원조 제공, 카타르는 카타르 내 요르단인에게 일자리 1만 개 제공, 요르단의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에 5억 달러 원조 제공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는 중립적 자세 필요

- 요르단 인구의 약 60%가 팔레스타인 출신이며, 최근 20년 내 요르단으로 이주한 팔레스타인계 주민이 많아 국내적으로 반이스라엘 감정이 높으나, 물 부족 국가인 요르단이 물 공급을 이스라엘에 의존하고 있어 균형 있는 외교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스라엘 정부가 유대인 극단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예루살렘 성지인 Al Aqsa Mosque/Al Haram Sharif 내 예배를 허용하고 요르단 강 서안 지구에 3,144채 규모의 새로운 정착촌 건설 계획을 승인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지속되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 요르단-이스라엘-UAE 3개국은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수자원 사업 관련 의향서를 체결함. 주요 내용은 요르단이 UAE의 기술로 사막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여기서 생산한 약 600MW의 친환경 전기를 이스라엘이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한 용수 2억 m<sup>3</sup>와 교환하는 것임.
- 동 사업으로 이스라엘은 친환경 전기를 공급받아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로 심각한 물 부족에 직면한 요르단은 더 많은 용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국제관계

###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 인접국들의 재건 움직임에 따라 관계개선 및 협력 추진 중

- 인접국들인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내전 또는 분쟁이 계속되면서 이들 국가로부터 난민의 대거 유입이 지속되어 왔으며, 아울러 이들 국가들과의 국경이 폐쇄되어 무역상의 손실을 입음.
- 항구도시 아카바를 통해 수입한 물품을 시리아와 이라크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이 요르단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IS 사태로 2015년 이후 요르단-시리아 국경 폐쇄 및 재개방이 반복되면서 최대 13억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요르단 정부는 시리아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2021년 9월 양국 간 국경 통행을 재개하고 시리아, 이집트, 레바논과 이집트산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시리아 영토를 거쳐 레바논에 공급하는 방안에 합의하였으며, 10월 요르단-시리아 간 항공편을 재개함. 이라크와도 2017년 양국 간 국경을 정상화한 이후 이라크 바스라 항 - 요르단 아카바 항 - 이집트를 잇는 송유관 건설 및 공동 경제도시 건설에 합의하는 등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외채상환태도

### 2022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율은 미미한 수준

- 2022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요르단에 대한 여신원리금 잔액 4억 1,909만 달러(단기 1억 6,680만 달러, 중장기 2억 5,229만 달러) 중 연체는 27만 달러(연체율 0.07%)의 미미한 수준으로, 외채상환 태도는 양호한 편으로 파악됨.

### 6건의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중 현재 2건에 대해 상환 중

- 요르단은 총 6차례에 걸쳐 외채 리스케줄링을 받았으며, 이 중 1989~97년 중 합의된 리스케줄링 채무액은 전액 상환하였고, 1999년과 2002년 리스케줄링 채무에 대해서는 현재 연체 없이 상환 중임.
- 파리클럽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요르단의 파리클럽 회원국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채무잔액은 총 34.27억 달러이며, 채무잔액의 대부분(33.86억 달러)은 ODA 채무임.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2023.01)	5등급(2022.01)
Moody's	B1 (2022.11)	B1 (2020.11)
Fitch	BB- (2022.08)	BB- (2021.12)

### Moody's는 2022년 11월 요르단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

- 2022년 11월 Moody's는 요르단의 2023~24년 경제성장률을 3~3.5%로 전망하며 요르단 정부의 광범위한 구조개혁 약속,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 기초, 세금징수 강화를 위한 재무부의 일련의 개혁, 정부의 경제 현대화 비전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Fitch는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경제 및 금융개혁과 국내외 금융시장에서의 조달능력 및 국제적 지원을 근거로 요르단의 국가신용도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함.

- 2010년대부터 평균 2.4%대의 저성장에 머무르던 요르단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1.6%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2021년 관광산업 반등 및 대내외 수요 증가로 2.2%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였으며 2022년에도 2.7%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2년 재정수지 적자는 세수 증가 및 지출 감소로 전년 대비 약 5.0% 감소한 데 이어 경기 회복세 지속과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2023년에도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경상수지 적자는 관광업 회복에 따른 서비스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1.8% 감소에 그침.
-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왕의 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정치가 안정되어 있으며, 이복동생 함자 왕자의 쿠데타 시도로 왕권에 위협을 느낀 압둘라 2세 국왕이 정치적 불만 해소를 위해 정치 시스템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지적도 있음.
-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 등 주변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 지정학적 위험이 높은 가운데 주변국들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GCC 회원국들로부터의 재정-군사 지원을 받고 있음.